

시가·소설·편지·금석문... 방언·생활상 고스란히 담겨

호남의 기록문화유산

⑤ 한글 고문서

책상을 정리하다가 지난 시절 쓴 일기나 편지, 사진첩을 꺼내 들여다 본 경험에 있을 것이다. 아련히 떠오르는 추억과 새삼스러움은 기억 저편으로 흐려졌던 시간을 되돌려 작은 기쁨을 동반한다. 잊혀졌던 시간은 기록을 통해 되살아나면서 순간은 다시 이어져 간다.

주변에서 선조들이 남긴 기록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전해져 내려오는 선대 기록물은 소장한 개인이나 기관만의 것이 아니라 후대 우리 모든 이의 문화유산이다.

이들 자료는 문화 콘텐츠(알맹이)의 1차 자료가 되고 개인사, 문중사, 지역 생활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제 자리에 함께 모여 있어야 제 가치를 드러낼 문헌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리저리 흩어져 기록자나 유서를 알 수 없게 되어 가고, 또 이 과정에서 적잖이 망실해 가는 실정이다.

더 이상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기록유산을 산실하기 전에 발굴 수집 정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최근 많은 학자들이 문헌을 해제하고 소개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런 결과 점차 좋은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 그런데 한문 고문헌 연구에 비해 아직 한글 고문헌에 대한 수집 정리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조선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로 관청, 사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한글문헌을 편찬하고 간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도 수많은 한글 기록물을 남겼다.

비록 '언문(諺文)'이라 불리며 나라의 주된 문자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사서삼경이나 불경 언해서, 시가, 소설, 편지, 조리서, 물목, 웃본이나 버전본 글 등 한글로 남겨진 기록은 종이 책에서 금석문에 이르기까지 종류나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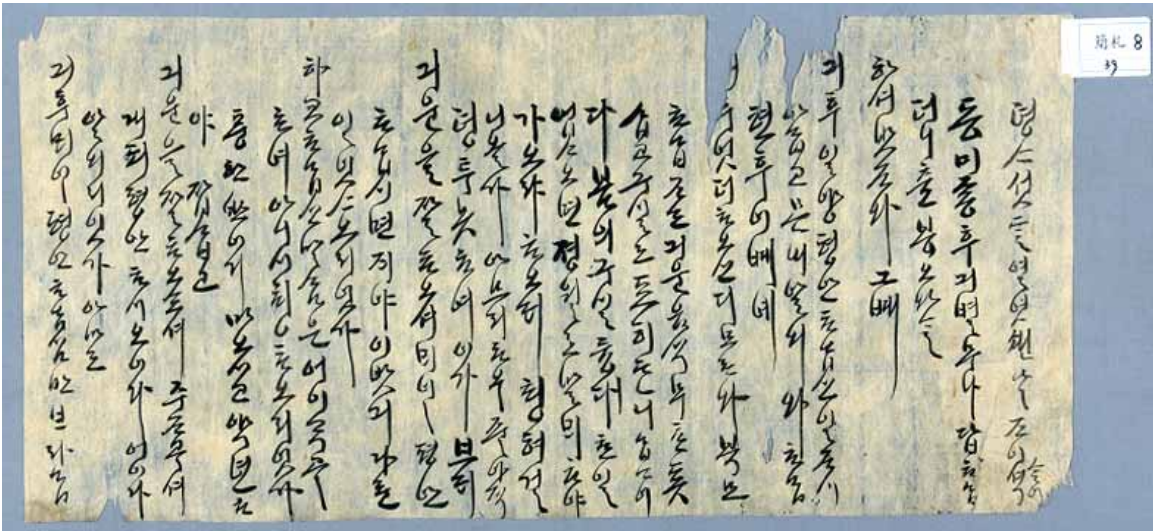
이 중에서 지방에서 간행하거나 필사한 생활 문헌은 당대의 지역 방언과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커다란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이런 한글 문헌일지라도 고문헌은 일반 대중이 이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1900년대 초에 나온 책만 해도 현재와는 다른 정서법을 사용하여 읽기가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보다 수백 년이 더 지나고 오랜 문헌일수록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연구소나 사업단이 오랜 시간과 공력을 들여 문헌 해제 작업 등을 해오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호남 지역의 문헌도 수집 정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한문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호남 지역의 한글 고문헌은 기존의 한문 고문헌에 비해 거의 수집 연구하지 않았고, 아직 수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저 어렵잡아 수만 종으로 추정할 뿐이다. 도처에 흩어진 자료를 하루빨리 발굴하고 수집 분류하여 목록을 집대성하고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자료를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1677년 해남윤씨 윤이석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사진.

개인·문중史·지역 실정 등 확인 가능

한문 고문헌에 비해 연구 미흡 아쉬워

.....(전략).....기체(氣體, 몸과 마음) 어떠하진지 몰라 복모(伏魔)하는(삼가 사모하는) 저는 기운과 먹고 마시는 것이 무한히 좋고, 관청에도 잘 다닙니다. 봄에 관청에 중대한 일이 없으면 정월로 말미를 내어 가오려 하오되, 행여 걸릴까 어떻게 할 줄을 아직 정하지 못하여.....(후략).....〈해남 윤씨 인간, 윤이석이 어머니께 보낸 편지 중〉

위 편지는 해남 윤씨 윤이석(尹爾錫, 1626~1694)이 1677년에 자기 어머니께 보낸 편지이다.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겨울에 소식을 들은 뒤로 기쁨을 몰라 답답했는데 인편으로 편지를 전해 받아 어머니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정월에 어머니를 뵈러 갈까 하는데 혹시 허물을 잡힐까 싶어 여저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달그믐을 보름 앞두고 아들이 어머니께 드리는 세모 문안 편지이다.

이러한 편지들이 인물별, 문중별, 지역별로 모이면 인물별, 문중 생활과 가풍, 당대 지역 실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편지뿐 아니라 물목, 조리서 등 이루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생활 기록 문서를 집대성한다면 잊혀진 옛 말, 옛 문화를 상당수 재구할 수 있게 되어 사극 등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교류재단과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단'에서는 2012년 한 항목으로 '호남 한글 고문헌의 발굴조사와 해제' 작업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5년 동안 새로운 한글 고문헌 100여 종을 발굴·수집·정리·해제하는 것이 목표이다. 1차년인 올해에는 인간류, 물목류 100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 기존의 한문 문헌 연구 성과와 융합한다면 호남기록문화유산의 실상과 선조들의 생활사를 좀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관청에서 펴낸 목판본이나 활판본을 중심으로 한글 고문헌을 연구하여 왔다. 우리 사업단의 이번 연구는 편지나 고문서 등 그동안 서지나 내용 면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던 필사본 자료, 민중의 생활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한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금까지 눈여겨 오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호남 지역의 한글 문헌을 발굴·수집하고 자료를 널리 소개하게 되어 다행이다. 향후 산발적으로 알려진 호남 지역의 한글 고문헌을 분류 집대성한 목록집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

손화하(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shh@chonnam.ac.kr)

이 기사는 (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김대현 교수

“오래된 기록문화 발굴·정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자원”

“오래된 우리의 기록문화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전통과 역사를 통해 과거를 알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그 자신들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자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재)지역문화교류재단과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김대현(전남대 국문학과 교수)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소장은 각종 기록물들은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훌륭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김교수가 우리 지역의 기록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0여년 전부터다. 서울 지역에서 기록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됐지만 '지역'의 경우 극히 일부에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지역 문헌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보자며 제자들과 의기투합, 지난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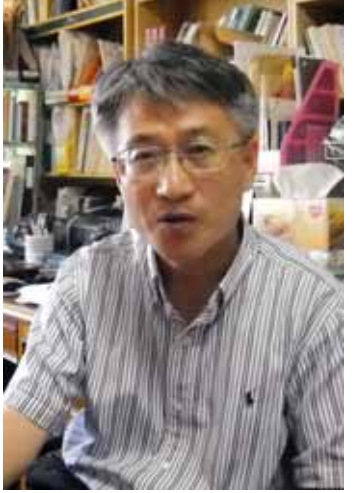
김교수팀은 지난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옛 기록물을 문집, 지방지, 고서화, 누정현관, 고문서, 일기, 한글 고문헌, 호남인물검색 시스템 등 모두 8개 분야로 세분화해 번역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교수는 각각의 분야는 현재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일기는 옛날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음식, 의복은 물론이고 성생활까지도 다 기록돼 있죠. 이런 일기는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의병장 일기 등을 잘 파악하면 당시 의병들의 삶과 역사를 온전히 복원해 낼 수도 있죠. 가장 사적인 은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편지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광주가 예향임을 잘 보여주는 한문 문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문 문집은 우리 지역 문화의 정수를 제대로 보여주는 분야입니다. 호남 지역은 한시 등 그 어느 지역 문화권 보다 풍부한 문학 텍스트를 갖고 있어요. 한시 등 문학은 풍부한 상상력의 원천이 있어야 가능한 장



르죠. 기록문화 속에서 사는 건 상상력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소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인물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호남인물기초자료집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을 정리했던 김교수팀은 앞으로 20세기 인물들까지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누정 현관은 가장 실용적인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죠. 식영정을 방문하거나, 증신사를 찾을 때 현관에 적힌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곳을 찾는 즐거움이 더 커지겠죠. 궁극적으로는 현관을 번역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김교수는 안동국학진흥원을 통해 체계적인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남 지역에 비해 호남 지역의 기록문화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예술의 거리에 나가보면 고서나 그림들을 전부 외지인들이 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안타깝죠. 가장 오래된 무등산 관련 그림도 현재 영남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어요. 옛 문서들을 번역하고 콘텐츠화하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터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교수팀의 연구 결과물은 호남기록문화유산(www.honamcult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실내골프연습장

SKY골프 Club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월·화·수, 넷·화·수 일요일 쉽니다.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

친환경

2012년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돈**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력은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300~35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을줄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준요금(요리사용전환용 세비)에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월)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월)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월) 때	약 8,900원	약 111,100원
15만원 (약 540kWh/월)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월)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월)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월)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자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